06
2019

재외동포의 창

특집 _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성황리에 개최… 새 임원진 선출
화제 _ 문 대통령 “北 평화는 핵 아닌 대화로… 서로의 체제 보장돼야”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재외동포는 조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 시대의 ‘독립투사’”

윤동주 · 최재형 ‘재외동포’ 초등교과서 명기는 재외동포 인식 새롭게 할 계기

지난 3월 말 세종문화회관 세종미술관에서는 무척 뜻깊은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위대한 여성독립운동가, 전시로 만나다’라는 국립여성사전시관 특별기획전이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독립의 일념으로 투쟁하고, 고난의 행군을 해온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회였습니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합당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오지 못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만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전시회 개막 행사 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국땅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극한의 고통을 감내했는지 비로소 알게 되어서였습니다. 더더욱 저를 부끄럽게 한 것은 3·1운동 직전에 1천335자로 쓰인 ‘대한독립여자선언서’가 만주 지역에서 발표됐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선언서에는 여성들이 조국독립의 주체로 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이 선언서를 3·1운동 이전에 발표된 여성들의 첫 독립선언서로 평가합니다. 엄혹하기 이를 데 없던 그 시절, 조국독립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이제라도 찬찬히 더듬어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조국독립을 향해 기꺼이 걸었던 그 가시밭길의 의미를 뒤늦게나마 되새기려 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4월 하순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열린 곳이 백두산이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750만 재외동포들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백두산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재외동포는 외국에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 시대의 ‘독립투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간도에서 태어나 성장한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과 러시아에서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지원한,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린 최재형 선생이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재외동포’로 처음 명기됐다고 합니다.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

조 성 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CONTENTS

2019. 06

02 권두언 "재외동포는 조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 시대의 '독립투사'"
조성부 연합뉴스 대표이사 사장

04 특집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성황리에 개최… 새 임원진 선출

06 화제 문 대통령 "北 평화는 핵 아닌 대화로… 서로의 체제 보장돼야"

08 인터뷰 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입양인도 동포… 국가가 적극 대처해야"
"교과서에 재외동포 소개,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도움"

10 기획 이주 20여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 이룬 인도 첸나이 한인사회

12 글로벌 코리안 난민 교육사업으로 美 '엘리스섬 메달' 수상한 박종환 회장
20년 가까이 예술제본 '외길'… 최고장인 선정된 조용덕 씨
작년 중간선거 역전패 딛고 美 연방하원의원 재도전 나선 영 김

14 한민족 공감 1 재미동포 故 김영옥 대령이 전쟁고아 돌봤던 곳에 선행 안내판 세워져

15 한민족 공감 2 방탄소년단, 유럽 스타디움 투어 피날레… 23만 관객 동원

16 동포소식 "타국 동포와 교류할 것"… LA한인회, 네트워크 확대 발걸음 외

19 동포 캘린더 월드옥타,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3천200만 원 기탁 외

20 유공동포 자전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재독동포 작가 이미륵

21 지구촌 통신원 "11개월 때 입양돼 한국 기억 없지만 한국인 특유의 근성 자각"

22 OKF 뉴스 재외동포재단, 베트남서 '한-베 다문화 박항서 축구교실' 열어 외

24 재단공지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 외

26 기고문 잊혀진 고려인의 항일운동
박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발행인: 한우성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본사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구 서귀포시 제2청사)
전화: 82-64-786-0200, 팩스: 82-64-786-0239,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서울사무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 외교센터 4층
전화: 82-2-3415-0100, 팩스: 82-2-3415-0118,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 · 편집 : 재외동포재단 연구소통부 prc@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평화당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외교부 산하 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전 세계 74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성황리에 개최… 새 임원진 선출

한우성 이사장 "동포 2세의 한국말 사용 원활한 건 한글학교 선생님 노고 덕분"

제14회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가 5월 10~12일 프랑스 리용 NH 에어포트 호텔에서 21개 국가 51개 한글학교 교사 · 교장을 비롯하여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최종문 주 프랑스 대사,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 나상원 프랑스 한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 회장에 이하늘 독일 비스바덴 한글학교 교장을 선출했다. 부회장에 이장석 프랑스 몽펠리에 한글학교 교장과 김도원 영국 캠브리지 한글학교 교장을, 사무총장에 신둘순 스위스 취리히 한글학교 교장을 선출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축사에서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5만 명의 재외동포를 이스라엘로 초청하고 있으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동포 2세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동포 2세들의 한국말 사용이 원활하다. 이는 여기 계신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참석 교사들은 프랑스 송세경, 독일 최영규, 영국 김수경 교육원장으로부터 한국어 교육과 한글학교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또한, 초빙 강사로부터 '산업혁명시대-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이승민 미국 새 언약 한글학교 교장), '놀이로 배우는 역사 교육'(이지민 한국 오산 원일초등학교 교사), '극한 직업, 한글학교 교사'(이현정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글학교 교사) 등의 강의를, 흥미 있게 들었다. 행사 이틀째인 5월 12일 한우성 동포재단 이사장과 교장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프랑스 서부 쇨레 한글학교 신현숙 교장은 "한글은 역사가 짧은 만큼 다른 언어보다 어문 규범의 변화 등이 빠르다"면서 "이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현지 연수 시에 국내 교수를 강사로 파견해달라"고 건의했다. 핀란드 한글학교의 황운희 교장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한글학교 박정수 교장은 "재외동포 중 · 고생 교육 교재는 훌륭한 교재가 많으나, 유아용 교재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 유아용 교재를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글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교재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운송을 통한 교재 배송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에서의 한국어 집중 캠프 행사 모두가 만족… 일회성 아니라 지속해야"

이에 대해 한 이사장은 "현지 연수 시 한국어 또는 역사 전공 교수의 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한글학교 운영비의 25%를 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40%가량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5월 12일 프랑스 클레르몽페랑 한글학

1

2

교 박선영 교장, 몽펠리에 한글학교 소피-미애 교사와 면담을 하고 입양인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한 이사장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1948~1957년 기간을 제외하고 한국내에서 해외로 보낸 입양인 숫자는 약 20만 명에 달하며, 2세와 3세까지 포함하면 50만~6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재외동포재단에서 본격적으로 한인 입양인 지원을 시작하기에 앞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교장은 "지난해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가 열렸고 참가자 모두가 만족했던 훌륭한 캠프였다"며 "다만, 이러한 캠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였으면 한다. 향후 캠프 참가를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으며, 일회성 행사는 오히려 입양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하늘 회장은 "이번 연수가 교사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장이 됨과 동시에 실제 수업시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동포재단, 스웨덴 · 노르웨이 입양동포 가족 한국어 집중캠프 개최

재외동포재단은 8월 국내서 열리는 '2019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앞서 스웨덴한국학교(이사장 신미성), 노르웨이한글학교(교장 김진경)와 공동으로 현지에서 한국어 집중캠프를 개최했다. 스웨덴지역 캠프에는 6월 15~16일 입양동포 18가족 40여 명, 노르웨이지역 캠프에는 6월 21~23일 입양동포 7가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는 입양동포 가족들에게 한국 언어와 문화에 대한 기초수업을 시행하고 한식 만들기, 전통 공예품 만들기, 전통 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지난해 현지캠프는 7월 프랑스 클레르몽페랑에서 입양동포 30명과 그들의 자녀 3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스웨덴한국학교 신미성 이사장은 "평소 한국입양인협회와 협력 관계에 있으며, 얼마 전부터 한국 입양인협회의 요청으로 한국어 강의 원격 시행에 대해 구상을 하고 있다. 스웨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입양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현지 특성에 맞는 한국어 맞춤 교육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나 동포재단에 바라는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입양인들은 한국의 미혼모 지원책이나 한부모 가족 정책 등에 많은 관심이 있다. 입양동포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러한 정책들이 먼저 잘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입양동포들은 8월 9~1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재외동포재단 주최 모국 초청캠프(2019 차세대동포 한국어 집중캠프)에 참여한다. 창

1. 5월 10~12일 프랑스 리용에서 열린 제14회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2. 올해로 14회째인 유럽한글학교협의회 교사 연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제공
3. 소고와 장구, 북 등 전통악기를 통한 '풍물배우기 수업'에 참여한 유럽 지역 한글학교 교사들. 유럽한글학교협의회 제공
4. 6월 15~16일 입양동포 18가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스웨덴 현지에서 '한국어 집중캠프'가 열렸다.

5~6. 스웨덴에서 열린 '한국어 집중캠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전통춤 등을 배우는 모습.

문 대통령 "北 평화는 핵 아닌 대화로… 서로의 체제 보장돼야"

북유럽 3국 순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의지 피력

1

2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4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말했다.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수도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 의사당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라는 주제로 한 연설에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라며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남북 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남북이 서로 가져야 할 세 가지 신뢰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의 체제는 존중돼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며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하며, 그것이 대화의 전제다. 한국 국민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들며,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완전한 핵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회담前 실무협상 먼저 해야 하노이회담처럼 안돼"

문 대통령은 이어 6월 15일 오전 살트셰바덴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스테판 뢰벤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간의 구체적인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사전에 실무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무협상을 토대로 (북미) 양 정상 간 회담이 이뤄져야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합의하지 못한 채 헤어지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 간 대화가 복원되더라도 실무 단위의 충분한 사전 소통이 있어야 최종 결정단계인 북미 정상 간 회담에서 '노딜'을 막을 수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 '오슬로 구상'… 국민 삶 도움되는 '적극적 평화' 역설

문 대통령은 6 · 12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1주년인 6월 12일 노르웨

이 오슬로에서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목의 새로운 대북구상을 내놨다. 노르웨이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오슬로 대학교 법대 대강당에서 이뤄진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며, 대화의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연장선에서 북미 간 핵 협상 교착국면 역시 "70년간 적대해온 마음을 녹여가는 것"이라며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국민이 서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고 말했다. 결국, 전쟁 등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뿐인 '소극적인 평화'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인 셈이다.

"헬싱키 프로세스, 교훈과 시사점 줘… 평화를 향한 대화 노력 지속이 중요"

앞서 6월 11일 핀란드를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은 헬싱키의 핀란디아 홀에서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 등 핀란드 원로 지도자들을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마지막 남은 냉전을 해체하는 일"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이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헬싱키 프로세스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에서의 평화 구축에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나토와 바르샤바 동맹 35개 회원국이 유럽의 안보협력을 위해 1975년에 체결한 '헬싱키 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헬싱키 프로세스는 1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신뢰구축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평화를 향한 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창

1.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 대통령이 6월 14일 오후 스톡홀름 앳 식스 호텔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스테판 뢰벤 총리 등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 문 대통령이 6월 15일 오전 쌀트쉐바덴 그랜드 호텔에서 스테판 뢰벤 총리와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호텔은 1938년 스웨덴 노사 대타협을 이룬 '쌀트쉐바덴 협약'체결 장소로 유명하다.
3. 스웨덴을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4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시내에 있는 의회 제2의사당에서 연설하고 있다.
4. 문 대통령이 6월 12일 오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5. 문 대통령이 6월 14일 오전 스웨덴 스톡홀름 왕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이 끝난 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함께 환영하는 한인 동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6. 문 대통령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이 6월 11일 오전 헬싱키 파시토르니 회관에서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
“입양인도 동포… 국가가 적극 대처해야”
“교과서에 재외동포 소개,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도움”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63 · 사진)은 타의로 한국을 떠나게 된 해외입양인을 동포로 감싸 안고, 입양인의 한국인 정체성 강화, 친족 찾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6월 17일 서초구 외교센터 내 재외동포재단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개인의 무책임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것”이라며”입양인이 친족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입양인 유전자(DNA) 뱅크를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양인 또는 친족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자신의 유전자를 등록해두면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양쪽이 모두 원해서 유전자를 등록해둔 경우만 가능토록 하자는 제안이다. 그는 또 “교과서 내 재외동포라는 문구 하나가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도움이 된다”며 국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존재와 역할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이사장 인터뷰 내용.

Q 취임 후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 중인가.

A 우리 동포지만 우리 정부뿐 아니라 거주국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동포들이 있다. 취임 후 연구소통부 내 인권사업팀을 만들어 이들을 돕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먼저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사업이다. 한국으로 와서 결혼한 베트남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이라 베트남의 여러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돼 있다. 이들은 출국하면 5년 뒤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부가 동의를 해줘야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어 떨어져 사는데, 친부의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 아이들이 베트남 내에서 불법체류자가 될 수도 있다.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만 아이들의 엄마들은 아이들의 한국 국적을 지키고 싶어한다. 신분상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겠느냐.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행히 재단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이 관여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자원을 막 투입하기 시작한 단계다.

다른 하나는 해외입양인 문제다. 사실 우리나라는 1958년부터 입양인 통계를 수집했는데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58년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아이가 해외로 입양을 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관련 전문가들은 1945년부터 1958년까지 해외입양인 수를 추정해 총 규모를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입양인 2세, 3세를 고려하면 해외입양인와 그 가족은 이보다 훨씬 많다. 입양이 개인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민을 잘 지키지 못한 이슈라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해외 입양과 관련해 쓰는 예산은 1년에 10억 원 수준이다. 예산으로만 보면 우리 정부는 해외 입

동포시인 · 독립운동가 윤동주(尹東柱, 1917~1945)
· 북간도 용정 출생. 20세에 조선으로 유학, 연희전문학교 졸업.
· 24세에 일본으로 가 유학 중 독립운동 죄목으로 일본 경찰에 체포돼 옥고를 치르다 27세에 서거했다.
· 건국훈장 독립장(1990).

양에 대해 아무런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 부분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번에 외교부가 재외동포 현황을 발표하는데 해외입양인 숫자를 포함한다고 들었다. 이들을 동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해외입양인과 관련해 재단이 추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A 입양인을 만나보니 이들이 친부모 만나기를 굉장히 원한다. 입양 당시 서류를 가지고 있지만, 이 서류로는 부모를 찾기 굉장히 어렵다. 입양 서류의 디지털화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그래서 입양인이 친족을 찾기 위한 DNA 뱅크가 설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실종자, 전사자 가족 찾기에 DNA가 활용되고 있다. 물론 희망자에 한해 이 시스템을 오픈하면 된다. 원하는 사람에게 5만~6만 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DNA 뱅크에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놓으면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관련법을 개정해 입양인이 친족을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문을 열어줘야 한다.

Q 그간 재외동포 정책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A 국민이 일단 동포에 대해 잘 모른다. 우리 국민이 무지해서 냉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포에 대한 교육을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없고 교과서에도 재외동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동포 정책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안 돼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 20여 국의 헌법에 동포에 대한 언급이 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문구부터 동포와의 교류 정도를 이야기하는 문구까지 다양하다. 우리는 전혀 없다. 우리나라 헌법도 가장 낮은 강도의 '교류' 정도는 언급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Q 최근 초등학교 교과서에 윤동주와 최재형이 재외동포로 언급되는 성과가 있었다.

A 예전에는 교과서에 동포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관심이 부족해 어느 순간부터 동포라는 용어가 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2017년 취임하고 보니 교과서에 동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 교육부에 여러 차례 건의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 이 정도도 정말 고맙지만,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초 · 중 · 고교 교과서에 재외동포가 343명 정도 있으나 이들이 동포라고 밝혀져 있지 않다. 외규장각 의궤를 발견해 국내 반환을 위해 힘쓴 재불학자 박병선을 소개할 때도 '재불동포학자 박병선'이라고 밝히면 좋지 않을까. 현재 우리나라가 일본에 10개의 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9곳은 재일동포가 우리 정부에 무상으로 기부한 공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교과서 한쪽에 실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나. 교과서 내 동포라는 문구 하나가 지구촌 한민족 통합에 도움이 되고 지구촌에 한민족 에너지를 하나로 합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Q 윤동주가 동포와 내국인을 통합할 수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인가.

A 쇼팽의 사례를 언급하고 싶다. 쇼팽은 폴란드에서 태어났으나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했고 프랑스에서 사망했지만, 사망 직전 '내 심장은 폴란드에 보내달라'고 말할 정도로 애국심이 강했다고 한다. 폴란드는 수도 바르샤바의 공항 이름을 쇼팽 공항으로 지을 정도로 그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다. 폴란드 사람들에게 쇼팽에 관해 물어도 "어디에 살았는지가 왜 중요한가, 다 같은 폴란드인이다"라고 답하더라. 윤동주의 후손에게도 제가 폴란드에서 쇼팽이 하는 역할을 윤동주가 해주면 안 되느냐고 부탁하니 '동포 후손'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정리해줬다면서 정말 고마워하더라. 창

이주 20여 년 만에 비약적인 발전 이룬
인도 첸나이 한인사회

현대차를 필두로 한국 기업들 속속 진출해 한인 공동체 형성

전세계 한인사회 가운데 지난 20여 년간 가장 놀라운 성장을 이룬 곳을 꼽으라면 인도 남부 첸나이를 빼놓을 수 없다. 외교부 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첸나이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한인 숫자는 4천900명이다. 인도 전체 한인 1만390명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20년 전만 해도 이곳에 사는 한인은 서너 가구에 불과했으니 그야말로 천지개벽의 변화라 할 수 있다. 현재 아시아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인 심상만 전 첸나이 한인회장은 "1997년 1월 8일, 특유의 인도 향을 맡으면서 첸나이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서 조금만 벗어나 시외로 나가면 도로 한가운데 소가 드러누워 자고 있고 돼지, 염소, 개, 닭들이 자유로이 어울려 다니는 아주 한가로운 전원 시골을 연상시켰어요"라고 회고했다. 당시에는 한인 동포라고 해봐야 7~8가구 정도가 살고 있었으며 외국인들도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낙후된 항구도시였다고 한다.

첸나이 한인사회가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배경은 현대자동차의 진출이다. 1996년 5월, 척박한 황무지 같은 벌판이었던 인도 타밀나두 주 첸나이에 현대차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인 첸나이 한인사회의 막이 열렸다. 현대차 인도법인 주재원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이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인사회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생활의 터전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숙소와 사무실, 식당 등의 공간이 마련되고, 자연스레 작게나마 한인들이 모이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현대차에 이어 코트라 첸나이 무역관이 개설되고 1997년부터는 현대차 협력업체들이 공장을 신축하고 합작법인도 설립하기 시작했다.

현대차 첸나이공장은 연간 70만대 규모의 승용차를 생산, 인도 시장에서 판매량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첸나이에는 현대차 이외에 삼성전자, 만도, 롯데제과, 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등 대기업이 진출해있고, 전체 250여 개 한국 기업 가운데 현대차 관련 업종이 80%에 달한다. 첸나이 한인사회는 '현대왕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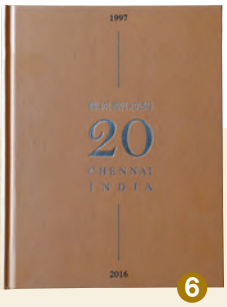
인도 정부 1991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한국 기업 진출 길 열려

첸나이는 한인의 인도 이민 역사에 중요한 위상을 지닌다. 한국전쟁 후 1954년 2월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을 희망한 반공포로 88명은 인도군과 함께 인천에서 수송선 아스토리아호를 탔고 보름여 후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도착한 곳이 인도 첸나이항이다. 반공포로 출신 이민자는 인도 땅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돼 70명은 중남미로, 10명은 북한, 중국으로 떠났고 지기철, 최인철, 현동화(87) 세 사람만 최종 정착해 인도 동포사회 1세대를 형성했다. 이중 유일한 생존자는 현동화 옹으로 뉴델리 한인회 고문이

1

2

3



다. 인도 정부가 1991년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것은 한국 기업들이 첸나이를 포함한 인도에 진출하는 기폭제가 됐다.

인도에는 뉴델리, 첸나이, 콜카타, 뭄바이, 푸네, 벵갈루루에 한인회가 있고 첸나이 한인회는 조상현 회장이 9대 회장으로 일하고 있다. 첸나이 한인사회는 2013년 총영사관이 개설되면서 든든한 보호자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여권이나 비자 업무를 보려면 뉴델리까지 가야 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총영사관 개설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이다. 한인사회와 총영사관은 공동으로 신년회와 송년회, 개천절 행사와 추석맞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첸나이에 100년 만의 폭우로 홍수가 났을 때 일부 한인 거주 가구가 위급한 상황을 맞기도 했으나 총영사관과 한인회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수해로 피해를 본 동포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첸나이 한인회는 현지의 명소인 마리나 해변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새벽에 회원들이 모여 운동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했는데, 이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자 인도의 라이온스, 로터리클럽, 업체까지 가담하고 나섰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연례행사가 됐다.

'첸나이 한인 20년사' 편찬으로 한인 진출 역사 정리

첸나이 한인회 활동 가운데 '20년사' 편찬을 빼놓을 수 없다. 551쪽에 달하는 두툼한 책은 1997~2016년 기간 현대차 등 한국 기업 현황을 비롯해 한인 진출 역사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첸나이 한인 2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았던 심상만 전 한인회장은 한국을 수시로 방문해 첸나이에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온 분들의 연락처를 수소문해 찾아가 옛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수집하는 수고를 마다치 않았다. 그는 편찬사에서 "훗날 수만 명이 넘는 동포사회가 되어 30년사, 50년사가 출판되는 날 후손에게 지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년사 편찬에 영향받아서인지 첸나이 한인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에세이 형식의 한인회장 인사말, 수입과 지출 명세서 등 정성을 기울인 '기록'이 감동을 준다. 한국정부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가 절실하다고 판단, '블루오션'인 아세안(ASEAN) 및 인도와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도는 세계 2위 규모의 '인구 대국'이며, 연 7%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 중에서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큰 시장으로 꼽힌다. 현대차를 비롯해 삼성, 엘지 등 한국 대기업들의 인도 시장 점유율이 1·2위를 차지하고 있고, 기아자동차가 인도 남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 아난타푸르 지역에 연산 40만대 규모의 공장을 설립해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첸나이 한인사회가 지난 20여 년 기간에 보여준 비약적인 발전은 신남방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창

1. 언제나 흥겨운 명절 행사. 사진은 2006년 2월 14일 한인 동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르메르디안 호텔에서 첸나이 한인회 주최로 열린 설날맞이 대잔치 행사.
2. 2014년 11월 16일, 첸나이 한인 동포와 현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K-food Festival 에서 대형 비빔밥을 만드는 장면.
3. 첸나이 한인회가 주도한 마리나 해변 정화작업은 현지 로타리클럽 등에서 동참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은 2014년 11월 최영함, 천지함 등 해군순항훈련전단이 첸나이를 방문했을 당시 우리 해군이 한인 동포, 현지 주민과 함께 마리나 해변 정화 행사에 참여한 모습.
4. 첸나이에 진출한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India)는 승용차를 연평균 75만대 생산하고 있으며 인도 시장에서 판매율 2위를 유지하고 있다.
5. 첸나이 시 전경. 첸나이는 인도 타밀나두 주, 벵골 만 연안에 위치해 있다. 마드라스라는 도시명이었으나 1996년 첸나이로 이름을 바꾸었다. 2007년 기준 총인구는 750만 명으로 인도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이다.
6. 2016년에 펴낸 '첸나이 20년사'. 첸나이 한인 진출 역사를 꼼꼼히 정리했다.

GLOBAL KOREAN

난민 교육사업으로
美 '엘리스섬 메달' 수상한
박종환 회장

"난민 청소년들에게 꿈을 펼쳐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

"한인 이민자들과 더불어 자부심을 느낍니다." 재미동포 기업가로 30여 년간 교육사업에 투신해온 박종환(56) 엘리트 에듀케이션 그룹 회장이 미국 내에서 개인에게 주는 최고의 영예 중 하나로 꼽히는 '엘리스섬 명예 메달'(Ellis Island Medal of Honor)을 최근 수상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 지니 로메티 IBM CEO, 무타르 켄트 코카콜라 회장 등이 올해의 수상자 명단에 있는 기업인들이다.

35년 전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온 뒤 SAT(미국 대입시험) 전문학원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한 박 회장은 미국을 포함해 6개국에 걸쳐 55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엘리스섬 명예 메달 수상자가 된 건 지난해부터 시작한 난민 교육사업 덕분이다. 엘리스섬 메달은 미국 대통령 자유의 메달에 이어 미국 사회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을 기리는 뜻을 담았다. 1986년 레이건 행정부 때 창설돼 엘리스섬 명예 소사이어티가 시상을 주관한다. 엘리스섬은 뉴욕항에 초창기 연방 이민국 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미국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박 회장은 5월 15일 "미국 전직 대통령 일곱 분이 받았다는 메달이라고 하니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라며 "이민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줄 기회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근에 난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학교를 개설했다. 엘리트 에듀케이션 그룹의 전 세계 스쿨 네트워크는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지향한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도네시아 보고르의 엘리트 난민교육 프로젝트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온 난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다. 100여 명이 미국 정규학교와 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받았다. 난민 청소년들이 영어 구사력과 자바 스크립트 같은 컴퓨터 코딩 능력, 학교 졸업장을 갖고 세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꿈을 펼쳐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박 회장의 교육 목표라고 한다.

책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프랑스 '최고장인' 영예 안아

"오브제(objet · 대상)로서의 책이 너무 좋아요. 책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예술 제본은 프랑스에서 오래전부터 뿌리를 내린 일이라 일도 끊이지 않고 들어오지요." 프랑스 파리에서 20년 가까이 수작업으로 한 땀 한 땀 책을 만드는 일을 하는 '제본사' 조용덕(44) 씨는 두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 프랑스 최고장인(Meilleur Ouvrier de France · MOF)의 영예를 안았다. MOF는 1924년부터 프랑스 교육부 · 노동부 주관으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프랑스의 장인(匠人) 콩쿠르로, 선정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프랑스 국가공인자격증 가운데에서도 최고로 손꼽힌다.

그는 작년 12월에 MOF 선정 소식을 듣는 순간 그동안 파리에서 책에 파묻혀 지내온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회고했다. 5월 13일에는 파리 소르본대에서의 시상식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엘리제궁 리셉션에 초청을 받아 제2의 조국인 프랑스의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기쁨도 누렸다.

조 씨는 한국에서 원예학과를 졸업한 뒤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다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일과 학업을 병행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프랑스로 건너가 캘리그라피를 배우던 중 예술제본의 세계에 눈을 떴다. "보는 순간 빠져들었어요. 독서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책 자체의 아름다움에 매료됐습니다. 책에 가죽옷을 입히고 금박 장식을 하고 색실을 꿰매 넣고 하는 수작업을 통해 그동안 제가 배운 것들을 모두 표출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도제식 교육을 받고 공방에서 일하면서 예술제본, 또는 고서 제본의 세계에 흠뻑 빠져들어 일하다 보니 어느새 프랑스 생활이 20년 가까이 흘러버렸다고 한다.

종이책을 만드는 공예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종이책의 미래를 물어봤다. "걱정은 하지 않아요. 전자책이 주는 신선함과 편리함이 있기는 하지만, 종이에 대한 노스탤지어는 항상 있거든요. 최근에는 오히려 제가 일하는 분야가 프랑스에서도 되살아나고 있어요."

20년 가까이 예술제본 '외길' 최고장인 선정된 조용덕 씨

"지역구민들은 정직하고 열의를 가진, 봉사 지향적인 대표를 원한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한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연방하원 입성이 유력했다가 막판 역전패한 영 김(56 · 공화) 전 캘리포니아 주 의원이 내년 말 치러지는 연방하원 선거에 재도전하겠다고 4월 30일 밝혔다. 영 김 전 의원의 리넷 최 보좌관은 이메일을 통해 "영 김이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에드 로이스 전 하원의원, 캘리포니아 공화당 대의원들의 절대적 지지를 바탕으로 선거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재개한다"라고 말했다.

영 김은 "이 지역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커뮤니티의 요구와 이슈를 알고 있다. 지역구민들은 정직하고 열의를 가진, 봉사 지향적인 대표를 원한다"라며 출사표를 던졌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영 김은 맹렬한 활동가이며 하원 공화당의 최고 신인 중 한 명"이라며 "그의 출마를 100%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로이스 전 의원은 "영 김은 검증된 커뮤니티 리더"라고 말했다.

영 김 전 의원 측은 켄 캘버트, 데빈 누네스, 더그 라말파, 폴 쿡, 톰 매클린톡 의원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영 김 후보는 지난해 11월 연방하원 39선거구 중간선거에서 길 시스네로스(민주) 후보에게 개표 직후 2.6%포인트 차로 앞섰다가 우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역전을 허용해 1.6%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로이스 전 의원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일하며 지역 기반을 닦아온 영 김은 지난해 6월 예비선거인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1위로 본선에 올라 사상 첫 한인 여성 미 연방하원의원 탄생의 기대감을 높였다. 창

작년 중간선거 역전패 딛고 美 연방하원의원 재도전 나선 영 김

재미동포 故 김영옥 대령이
전쟁고아 돌봤던 곳에 선행 안내판 세워져
서울 삼각지 경천애인사 옛터에서 제막식… 역사문화명소로 선정

서울 용산구의 역사문화명소 경천애인사(敬天愛人社) 자리에 재미 동포 김영옥(1919~2005) 대령의 선행을 담은 안내판이 세워졌다. 용산구청은 6월 19일 경천애인사가 있던 용산구 삼각지성당 앞에서 김 대령의 이야기를 담은 안내판 제막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경천애인사에서 지냈던 전쟁고아 출신 어르신 2명, 성장현 용산구청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국방부 국방정신전력원 교육생 40명 등이 참석했다. 한 이사장은 "6·25 전쟁 발발 69주년을 맞아 용산구가 경천애인사 터를 근·현대 역사문화명소로 선정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재외동포를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960년대 초반 중령 시절의 김영옥(좌).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를 돌본 '경천애인사 아동원' 옛터(현 서울 용산구 삼각지성당 앞)에서 6월 19일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왼쪽에서 세 번 째), 성장현 용산구청장 등이 안내판 제막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내판에는 경천애인사 이야기와 김영옥 대령의 선행이 기록됐다.

경천애인사는 설립 초반에 경영난을 겪었으나 당시 김영옥 소령이 지휘하던 미국 육군 7사단 31연대 1대대의 후원 속에 전쟁고아 500여 명을 돌봤다. 김영옥 대령은 미 육군 7사단 31연대 제1대대장(소령)으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한국 고아들을 돌보게 됐다. 1951년 장병들이 길에서 울고 있던 고아 1명을 인근 '경천애인사'라는 아동원(고아원)에 데려다줬다가 샘 닐 군목의 제안에 따라 그곳에 있던 고아원생 192명과 인연을 맺은 것. 김 대령은 2003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 경천애인사 전쟁고아들을 도와준 일에 대해 "군에 들어오는 담배와 맥주를 처분해 생긴 돈과 800명 군인이 50센트씩 내서 만든 400달러로 돕기 시작했죠. 고아들을 도왔지만, 사실은 군인들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고아원을 지원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싸우고 있는지 마음에 새기게 됐고 이로써 정신무장을 할 수 있었죠"라고 말했다.

김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이 돌봤던 국내 고아원생 2명과 50여 년 만에 해후했다. 반세기 만에 만난 이들은 서로 쉽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전쟁 당시 고아원의 기억을 떠올리며 이내 이야기꽃을 피웠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건물이 하나도 없었죠. 지금은 아마 상상도 못 할 겁니다. 그때 날씨가 무척 추웠는데 수천 명의 아이가 셔츠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알몸으로 구걸하고 다녔죠. 추위에 파랗게 질려있었는데 정말 불쌍했습니다." 한국전쟁 때 폭탄파편에 맞아 두 다리를 부상한 김 대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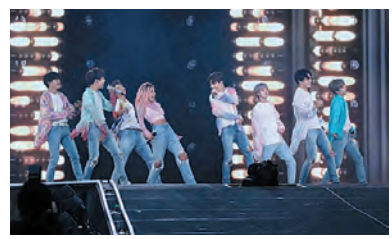
미국 이민 2세로 로스앤젤레스에서 독립운동가 김순권 선생의 아들로 태어난 김 대령은 미 사상 최초로 전선에서 대대장을 지낸 최초의 유색인 장교로 한국전쟁에서 은성, 동성 무공훈장을 받았다. 또 앞선 제2차 대전에서는 이탈리아, 프랑스 전선에 출전해 미 특별무공훈장과 이탈리아 최고무공 훈장, 프랑스 십자무공훈장을 받았다. 그는 전쟁영웅이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가정폭력피해여성·고아·입양아·빈민·청소년·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위대한 인권운동가였다. 2003년 1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우고 한인사회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창

방탄소년단,
유럽 스타디움 투어 피날레… 23만 관객 동원
해외 언론, 비틀스에 빗대며 "팝의 국경 없는 미래 구현"

그룹 방탄소년단이 23만 관객을 동원하며 스타디움 투어 '러브 유어셀프 :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 유럽 공연을 마쳤다. 6월 10일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들은 6월 1~2일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7~8일 프랑스 파리 스타드 드 프랑스 등 2개 도시 4회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총 23만 관객과 만났다.

6월 1일 오후 7시 30분 영국 런던의 대중문화와 스포츠 상징 웸블리 구장은 방탄소년단만의 왕국으로 변신했다. 6만 석을 가득 채운 팬클럽 '아미'(ARMY)는 고막을 찢는 듯한 환호성을 내지르며 21세기 비틀스의 재림을 환영했다. 이들은 강렬한 힙합곡 '디오니소스'로 유럽투어 포문을 열어젖혔다. 팬들은 연신 "오 마이 갓"을 외치고 발을 동동 구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일곱 멤버는 누구보다 웸블리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에 나온 것처럼 퀸이 공연한 장소일뿐더러, 손흥민이 활약 중인 잉글랜드 토트넘 홋스퍼의 한때 홈구장으로서, 웸블리는 세계적 인지도가 없으면 대관 자체가 힘들다. 공연장은 공식응원봉인 '아미밤'의 불빛과 팬들의 파도타기로 장관을 이뤘다. 영국은 물론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몰려든 팬들은 리듬에 몸을 맡기고 안무를 따라 췄다. 한국어 가사를 조금도 틀리지 않고 따라부르는 건 기본이었다. 영국 BBC와 음악 전문지 NME는 웸블리 공연에 대해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웸블리 스타디움에 입성하며 새 역사를 만들었다"며 웸블리 공연에서 세계 최대 팝 그룹임을 증명했다고 극찬했다. 또 텔레그래프는 "영어가 아닌 한국어(외국어)로 노래를 부르는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팝 센세이션이 되기 위한 모든 규칙을 깼다. 언어와 음악 장르를 부순, 팝의 국경 없는 미래를 구현하는 것 같았다"고 의미를 짚었다. 미국 CNN도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 맞춰 '한국에서 온 보이 밴드가 어떻게 세계 최고가 되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방탄소년단은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세계 최고의 그룹으로 거듭났다. 비틀스가 그랬던 것처럼 방탄소년단도 다른 대륙으로부터 넘어와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했다. 이것은 비틀스보다 더 대단한 성과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6월 1일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 스타디움 유럽투어에서 공연하고 있다. 이날 공연에는 6만 관객이 몰렸다(위). 6월 7일 파리 공연에서 팝스타 할시와 함께 무대를 꾸민 방탄소년단.

6월 7일 파리 공연에서는 새 앨범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 피처링에 참여한 팝스타 할시가 함께 무대를 꾸며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다. 프랑스 공연에 대한 현지 매체들의 극찬도 이어졌다. AFP, 르 피가로, 르몽드 등은 "방탄소년단은 스타드 드 프랑스를 휩쓸었으며, 전 세계에서 한국 음악의 성공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또 문화 · 패션지 베니티 페어 프랑스는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를 정복했다. 1960년대 비틀스가 있다면, 2010년대에는 방탄소년단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창

“타국 동포와 교류할 것”… LA한인회, 네트워크 확대 발걸음

로라 전 회장 등 한인회 임원 13명 중국 · 고국 지자체 방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념 촬영을 하는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과 임원들.

미국 LA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미주 동포뿐만 아니라 고국과도 교류하고, 다른 나라 동포와도 교류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 등 한인회 임원 13명은 4월 24일 LA를 출발해 인천을 거쳐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중국 옌볜조선족자치주를 돌아보고, 다시 고국에 입국해 부산, 경북 울릉도, 전주시, 전북 장수군, 여주시 등 지자체를 방문한 뒤 5월 10~11일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경희대를 찾아 교류 활동을 펼쳤다.

로라 전 회장은 5월 15일 “70만 LA 한인을 대표하는 우리 한인회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식은 LA에 머물러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국은 물론 다른 나라 동포들과도 교류하기 위해 이번 여정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이번 여정 가운데 중국 지린(吉林) 성 옌지(延吉), 룽징(龍井), 훈춘(琿春), 창춘(長春) 등을 가장 인상 깊게 손꼽았다. “항일 독립투사들의 발자취를 느꼈고, 그분들 덕택에 한국이 독립했으며 그 후 발전의 근거를 제공했음을 알았습니다. 미국의 차세대를 이곳에 보내 민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LA한인회는 앞으로 ‘한민족 한 핏줄 한 동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다. 조선족 학생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견문을 넓혀주고, LA 한인 학생들을 옌볜조선족자치주에 보내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배우게 하는 교류 활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미 뉴저지훈민학당 한국학교, ‘윤동주 한영 동시대회’ 열어

올해로 5년째… 5학년 이서연 학생 대상 수상

미 뉴저지 주 한글학교 ‘뉴저지훈민학당’이 6월 8일 개최한 제5회 ‘윤동주 한영 동시대회’ 수상자들.

미국 뉴저지 주 소재 뉴저지훈민학당 한국학교(교장 원혜경)가 주최한 제5회 윤동주 한영 동시대회가 6월 8일 개최됐다. 제5회 윤동주 한영 동시대회 대상은 5학년 이서연 학생의 ‘지키고 싶다’, 금상에는 박하은(5학년), 박가연(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원혜경 교장은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올해로 5년째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소 수업 시간에도 시를 외우고 쓰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저지훈민학당 한국학교는 봄학기 종강식에서 재학생들이 지난 봄학기 동안 한국학교 수업을 통해 만든 작품 전시회도 개최했다. 훈민학당 한글학교 가을학기는 9월 7일 시작한다.

민화협 中 동북3성 협의회 출범… "한민족 교류의 마중물 될 것"

임병진 주선양 총영사 "동북3성 조선족 동포사회와의 협력 힘써달라"

5월 16일 중국 랴오닝 성 선양(瀋陽)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중국 동북3성 협의회 창립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 랴오닝 성 선양(瀋陽)에서 5월 16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중국 동북3성 협의회가 출범했다. 민화협 중국 동북3성 협의회는 이날 선양의 '코리아타운'으로 불리는 시타제(西塔街)의 협의회 사무실에서 창립식과 총회를 열었다. 민화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200여 개의 정당 · 사회단체가 참여한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기구다.

정종렬 민화협 중국 동북3성 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한민족 교류의 마중물이 되겠다"면서 "동북 3성의 지역 가치를 알리고, 민족 공동 번영을 위해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상임의장은 "회원 대다수가 중국에서 성공한 중견기업인들"이라면서 "북한의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만나면 장차 동북아 번영시대를 주도할 드림팀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임병진 주선양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협력구상이 결실을 보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신북방정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이곳 동북 3성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민간차원의 소통창구로서, 민족화해협력과 평화시대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부탁한다"면서 "북한과의 협력에서 또 다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동북3성 조선족 동포사회와의 협력도 각별히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중국 선양 한국주 행사, 사드 여파 딛고 작년에 이어 열려

라종수 한인회장 "행사 통해 한 · 중 관계에 더 깊은 우정과 교류 희망 확인"

5월 23일 중국 랴오닝 성 선양에서 열린 제16회 선양한국주 개막식에서 한중 양측 인사들이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한 · 중 경제 · 문화 교류행사 '중국 선양 한국주(週)' 개막식이 5월 23~27일 열려 '사드 피해'의 상징인 선양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국상품전을 연 것을 비롯해 한 · 중 자동차산업 합작 상담회, 문화공연, 노래자랑 등을 진행했다.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개막식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신북방정책의 연계는 역내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끄는 힘찬 물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북 3성은 (두 정책이) 접점을 이루는 곳으로, 북방경제협력위의 핵심협력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랴오닝 성은 동북진흥전략 등 접경지역 경제발전을 추진 중이고, 선양은 동북 3성 경제 · 물류 · 산업의 중심지"라면서 "향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남 · 북 · 중 삼각 협력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기대했다. 임병진 주선양총영사는 "작년에는 우리가 선양시 정부에 재개를 요청했고, 시간이 촉박해 준비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올해는 선양시가 행사를 빨리 개최하자고 했고 내용도 폭넓어졌다"고 말했다.

라종수 선양한인회 회장은 "아쉬운 점은 많지만 이번 행사를 통해 한 · 중 관계에 더 깊은 우정과 교류의 희망을 확인했다"면서 "한국주를 통해 선양 시와 (선양의 '코리아타운' 격인) 시타제(西塔街)가 한류의 중심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행사는 한 · 중 경제 · 문화 교류를 위해 2002년 이후 매년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중국 랴오닝 성 선양 시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사드 여파 등으로 2016~2017년 2년간 열리지 못했다가 지난해 재개된 바 있다.

한국영화 100년 · 수교 60년 기념 '브라질 한국영화제' 상파울루서 개최

고전영화 '하녀'에 출연했던 브라질 동포 이은심 씨 개막식 참석

한-브라질 수교 60년과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브라질 한국영화제' 개막작품으로 김기영 감독의 '하녀'가 상영됐다. 하녀에 주연배우로 출연했던 이은심(가운데) 씨가 관객과 대화하고 있다.

한-브라질 수교 60년과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브라질 한국영화제'가 5월 30일 상파울루 시에서 개막됐다. 브라질 한국문화원(원장 권영상)이 주관하는 이 영화제는 상파울루의 대표적인 문화명소 가운데 하나인 시네마테카 브라질레이라(Cinemateca Brasileira)에서 6월 9일까지 11일간 계속됐다. 6회째인 올해 영화제에서는 고전영화 · 최신영화 · 독립영화 등 크게 3개 영역으로 나눠 한국영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작품 8편이 16회에 걸쳐 상영되고 야외영화 체험과 분장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권 원장은 "한국영화 탄생 100년이라는 사실을 브라질 영화 팬들에게 알리고 한국영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는 데 행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최고의 고전영화로 손꼽히는 김기영 감독의 '하녀'가 시네마테카 야외극장에서 35mm 흑백 필름으로 상영된 가운데 500여 명의 영화 팬이 한식 칵테일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당시 하녀 역을 맡았던 배우 이은심(85) 씨가 개막식에 참석해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씨는 한국에서 2편의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브라질로 이주했으며 지금까지 40여 년간 이민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이 씨는 "브라질에서 '하녀'를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큰 계기에 이런 행사에 참석하게 돼 너무 반갑고 기쁘다"고 말했다.

재미 한인기업 에누마,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 한국팀 첫 우승

엔씨소프트 출신 부부 설립… "개도국 아동 학습환경 개선 기뻐"

5월 16일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시상식에서 후원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참석해 스타트업 에누마의 이수인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와 공동 창업자이자 남편인 이건호 씨(왼쪽에서 2번째)에게 시상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인 기업인 에누마(대표 이수인)가 5월 16일 전 세계 아동 문맹 퇴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Global Learning XPRIZE)에서 공동 우승했다. 이 대회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이 출연한 상금 1천500만 달러가 걸린 초대형 국제대회다. 세계적으로 문맹 아동이 2억5천만 명, 초등과정 학교 밖 아동이 6천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학교와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저비용의 혁신적 교육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대회다. 이날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에누마가 영국 비영리단체 원빌리언과 공동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에누마와 원빌리언은 우승 상금을 절반씩 나눠 받았다. 엑스프라이즈 대회에서 한국팀이 우승한 것은 에누마가 처음이다. 에누마는 상금 이외에 국제기구, 세계 유수의 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합해 교육사업을 펼칠 기회도 얻게 됐다. 이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교육 관련 기업 · 단체 등 198개가 참여했다. 에누마는 엔씨소프트 출신의 이수인 · 이건호 씨 부부가 2012년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교육 스타트업이다. 이번 대회 참가팀 중 한국인을 주축으로 한 유일한 팀으로, 어린이들이 태블릿만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 기반 학습 앱 '킷킷스쿨'로 공동 대상을 받았다. 이수인 대표는 "개도국 아동의 학습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킷킷스쿨이 우수성을 입증받아 기쁘다"며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인도, 중동 지역 등 지구촌 곳곳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

월드옥타, 강원도 산불피해 성금 3천200만 원 기탁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 회장 하용화 · 사진 오른쪽)는 강원도 일대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본 이웃을 위한 성금 3천200만 원을 6월 18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월드옥타는 지난 4월 강원도 정선에서 제21차 세계대표자대회를 열었고, 당시 행사에서 산불피해 성금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73개국 144개 지회 소속 회원들은 행사장에서 성금을 내기로 약정했고, 최근 십시일반(十匙一飯) 모은 성금을 입금했다.

주영 한국대사관, 런던서 '한인 금융인의 밤' 개최

'재영 한인 범(凡) 금융인의 밤' 행사가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주최로 5월 16일 런던 타지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외국계와 한국계 금융회사 종사자뿐 아니라 법률, 회계, 컨설팅, 핀테크 등 유관 직종 전문가와 기업인 1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네트워킹이 이뤄졌다. 박은하 대사는 "한인 금융인 네트워크가 튼튼히 자리 잡아 한국 금융의 국제화와 한 · 영 금융협력, 더 나아가 우리 차세대들의 런던 금융계 진출에도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美 LA 시의회, 매년 5월 5일 '화랑 청소년의 날'로 선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매년 5월 5일을 '화랑 청소년의 날'로 선포했다. 허브 웨슨 LA시의회 의장과 한인 1.5세 데이비드 류(민주) 시의원, 화랑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사진 중앙), 대니얼 김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5월 14일 LA 시의사당에서 화랑 청소년의 날 제정 선포식을 열었다. 데이비드 류 의원이 발의한 화랑 청소년의 날 제정 결의안은 시의원 15명의 전원일치로 통과됐다.

"우리는 하나" 충북 음성서 사할린 동포 600여 명 한마음대회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음성지구협의회는 5월 22일 전국 사할린 이주 동포 600여 명을 음성읍 설성공원 품바 축제장으로 초청, 한마음대회를 열었다. 자원봉사자 400여 명도 이들과 함께 어울렸다. 장종일 음성 사할린 동포 회장은 "전국에 흩어져 사는 사할린 동포들이 만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KBS, 북방동포 체험수기집 '흔들리며 피는 꽃' 발간

KBS 라디오 한민족방송이 중국 조선족동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방동포 체험수기 공모 당선집 '흔들리며 피는 꽃'을 발간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북방동포 체험수기는 1998년부터 타국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정서를 보급하면서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체험담을 매년 KBS가 공모한 것이다. 이번 20회 공모 당선집에는 성인부문 대상과 특별상, 청소년부문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등 20편이 실렸다.

재외동포 유아용 한국어 교재 '신나는 한국어' 출간

국립국어원은 재외동포 미취학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재 '신나는 한국어'(Fun Korean)를 펴냈다고 6월 3일 밝혔다. 신나는 한국어는 모두 10권으로 구성되며, 그중 6권이 색깔 · 동물 · 악기 · 학교생활 · 가족과 친구 · 우리 동네 · 옛날이야기 등 18개 주제를 다룬 활동학습지 이다. 이슬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는 "외국 한글학교들이 이 교재를 활용해 유아 한국어 수업을 더욱 알차고 재미있게 운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인회 · 한글학교 등 동포단체 행사를 소개합니다. 널리 알리고 싶은 소식을 이메일(prc@okf.or.kr)로 보내주세요

자전소설 '압록강은 흐른다'의 재독동포 작가 이미륵

독립운동가, 철학자, 동물학 박사… 뛰어난 문체에 독일인 매료

내년이면 타계한 지 70년이 되지만 여전히 독일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작가. 그가 이미륵(1899~1950) 박사이다. 자전소설 '압록강은 흐른다'를 발표한 것은 1946년 47세 때였다. 독일어로 쓴 이 책은 작가가 황해도 해주에서 보낸 유년시절과 독립운동을 하면서 중국 상하이를 거쳐 독일까지 건너가게 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담았다. 이미륵이 쓴 마지막 장편 소설이었다. 뮌헨 피퍼 출판사에서 '압록강은 흐른다'를 출간하자, 독일 신문에 실린 서평이 100여 개에 달할 정도로 전후 독일 문단을 놀라게 했다. 외국인이 쓴 글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수려한 문체의 작품은 당시 '독일어로 쓰인 가장 훌륭한 책'이라는 찬사를 받았고, 발췌된 글은 독일 중·고교 교과서에 실렸다.

이미륵은 황해도 해주의 성공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원래 이름은 의경(儀景)이었다. 부모는 그가 미륵불의 은덕으로 점지된 아이라며 미륵이라 부르게 했다.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한 그는 1919년 결성된 독립운동단체 '대한민국 청년외교단'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활동하던 중, 일본 경찰에 쫓겨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고 다음 해 독일로 망명해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1920년 5월 독일에 도착하여 뷔르츠부르크 대학 및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1928년에는 뮌헨 대학에서 동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과는 상관없이 곧 창작 활동에 열중한 그는 주로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단편과 이야기들을 독일의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하였고, 독일 문단과 독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작가 활동을 하면서도, 1948년부터 뮌헨 대학 동양학부에서 한학과 한국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갑자기 덮친 병마로 1950년 3월 20일 뮌헨 교외 그레펠핑에서 타계했다. 임종의 자리에는 양부모로 도움을 준 자일러 여사와 친구들이 모여 이미륵에게 배운 애국가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미륵(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와 함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5월 28일 독일 남부 뮌헨 인근 도시인 그레펠핑 근처 쿠르트 후버 거리 입구에 이미륵 기념 동판을 부착했다.

'이미륵 평전'을 쓴 정규화 전 성신여대 독문과 교수는 "이미륵의 선구적인 공적은 독문 작품들을 통해서 한국 및 동양사상, 한국 문화를 서구에 전도한 점이다. 30여 년 장기간의 유럽 생활 속에서도 결코 동양의 전통적인 것을 경시하지 않고 서구의 기계주의 문명에다가 한국 사상을 우아한 스타일로 투입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미륵의 제자 볼프강 바우어 뮌헨대 동양학부 교수는 "이미륵은 서예가이자 의학도이고, 한학자이자, 작가이고 철학자였으며 특히 그의 온화한 선비정신과 넘치는 인간미는 주위의 학자들뿐만 아니라 소박한 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줬다"고 언급했다.

이미륵은 독일에서도 김법린·이극로 등과 함께 항일 활동을 펼쳤고, 반(反)나치 지식인인 쿠르트 후버 교수와 교류했다. 1963년 독립운동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올해 3·1운동 100돌을 맞아 이미륵을 추모하는 기념 동판이 그레펠핑 시청 근처 거리 입구에 설치됐다. 창

"11개월 때 입양돼 한국 기억 없지만 한국인 특유의 근성 자각"

이탈리아 와인 명장으로 우뚝 선 입양인 철규 펠로소

알스프산맥을 지척에 둔 이탈리아 북부 아오스타 일대에서 포도밭을 직접 일궈 자신의 이름을 내건 포도주를 선보이기 시작한 한국 입양인 출신의 안드레아 철규 펠로소(46) 씨.

최근 유럽의 권위 있는 와인상을 잇따라 수상하며 이탈리아는 물론 유럽 와인 업계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와인인 '푄(Foehn) 2016'으로 작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최대의 와인품평회 'AWC'와, 프랑스의 권위 있는 콩쿠르 '질베르 가이야르'(Gilbert Gaillard)에서 각각 은메달을 수상하면서 파란을 일으켰다. 또한, 수령 300년이 넘은 이탈리아 최고(最古)의 포도나무를 되살려 와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몇 년 전 공영방송 RAI, 유력 일간 라레푸블리카 등에 소개되면서 이탈리아 내에서도 전국적인 조명을 받기도 했다.

본명이 강철규인 그는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생후 11개월 때 이탈리아로 입양돼 아오스타의 양부모를 만났다고 한다. 양아버지는 와인 판매 등을 하는 사업가였고, 인생의 롤모델이 되어준 외할아버지는 와이너리를 직접 운영하던 신망 두터운 지역 유지였던 터라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포도 농사와 와인에 관심을 두게 됐다. 특히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이 한국과 동양의 장점을 늘 강조한 덕분에 많은 입양인이 느끼는 정체성 혼란 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던 그는 어릴 때부터의 관심사였던 와인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 20대 초반 와인 주조학으로 전공을 바꿨다. 협동조합과 다른 사람의 와이너리 등에서 일하던 그는 2015년부터 아오스타 일대의 버려진 포도밭을 재생시켜 자신의 포도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모부가 매입한 버려진 땅에서 오래된 포도나무를 발견했고, 이 나무로부터 이미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전설적인 '쁘띠 루즈'(Petit Rouge)라는 품종을 되살려 와인을 제조해 화제를 모았다. 아오스타가 속한 자치주인 발다오스타 지역 농업연구소의 분석 결과 수령이 300년이 넘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나무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포도나무로 등극했다.

생후 11개월 때 이탈리아 발다오스타로 입양된 한국 태생의 철규 펠로소 씨가 자신의 와인 주조창고에서 국제 와인 평가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주고 있다.

수확한 이 열매들의 발효와 숙성 작업을 끝내고 최근 '모나야 300'(Monaja 300)이라는 이름의 와인을 출시해 판매를 시작했다. 이 와인은 출시 전부터 워낙 화제를 모았던데다 연간 생산량을 300병으로 한정해 아오스타의 고급 호텔과 피렌체의 유명 와이너리 등을 중심으로 주문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곳에 입양된 이후 40여 년 간은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 여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안에 잠자고 있던 한국을 향한 애정이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제 한국과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제 땀과 열정이 녹아 있는 와인을 통해 낳아준 나라 한국과 키워준 나라 이탈리아를 좀 더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창

현윤경 연합뉴스 로마 특파원

재외동포재단, 베트남서 '한-베 다문화 박항서 축구교실' 열어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6월 20일 베트남 남부 껀터 시에 있는 '한-베 함께 돌봄센터'에서 '한-베 다문화 가정 축구교실'이 열렸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고상구 제18차 세계한상대회장(전 하노이 한인회장)이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현지 아동들과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은 6월 20일 베트남 남부 껀터 시에 있는 '한-베 함께 돌봄 센터'에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 감독과 함께 '한-베 다문화 가정 축구교실'을 열었다. 한 이사장과 박 감독은 이날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 50명과 현지 아동 50명 등, 100여 명의 어린이에게 축구교실과 동화책 읽어주기, 사인회 등을 진행했다.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 감독은 축구공 등 기념품을 전달하고 사인회도 가졌다.

축구교실이 진행된 한-베 함께 돌봄 센터는 지난해 1월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CUN)가 한-베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주 호찌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현대자동차, 베트남 껀터 여성연맹 등과 협력해 설립한 베트남 최초 한-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다.

동포재단은 한-베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무료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도서 · 교육 기자재 지원 사업을 해왔다. 올해는 한-베 다문화 자녀 현지 한글 캠프(7월 22~28일), 한-베 자녀 보호자 네트워크 구축, 법률 서비스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 이사장은 "한-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베트남 정부와 국민의 관심이 깊어지고, 한-베 자녀들이 지역사회와 어우러져 잘 살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포재단, 2019년 제4기 스터디코리안 해외통신원 선발

재외동포재단은 2019년 제4기 '스터디코리안 해외통신원'으로 19명을 선발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선발된 해외통신원은 미국 4명, 중국, 호주, 독일, 영국 각 2명, 뉴질랜드, 베트남, 러시아, 프랑스,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 각 1명이다. 이들은 재단이 운영하는 전 세계 한글교육 지원 교육사이트 '스터디코리안'에 거주국 한글학교와 재외동포 관련 교육정책 변화 및 현황 등에 관한 칼럼 형식의 콘텐츠(사진, 동영상 등)를 게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올해 세계한상대회장에 베트남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올가을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를 이끌 대회장에 베트남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62)이 선출됐다. 공동대회장에는 일반사단법인재일한국상공회의소 박의순 회장,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하용화 회장, 중남미한상연합회 이재훈 회장, 영비즈니스리더네트워크 김한신 회장, 제마이홀딩스그룹 이숙진 회장, 료녕신성실업유한공사 표성룡 회장이 결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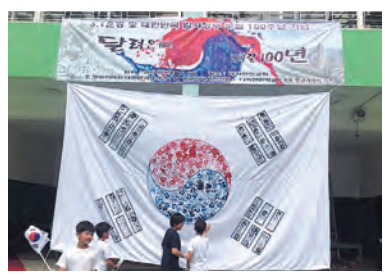
고상구 회장은 2006년 베트남 하노이에 한국식품 유통업체인 K-마켓을 설립했으며, 현재 다낭, 호찌민 등 베트남 전역으로 매장을 넓혀 70여 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K-마켓이 한상 기업 최초로 베트남 100대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 하노이 한인회장과 베트남한인회 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고 회장은 "이번 대회가 한상과 국내 중소기업 간 실질적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동대회장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부터 2박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가을 열리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를 이끌 대회장에 베트남 K&K트레이딩 고상구 회장이 선출됐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우수 콘텐츠 공모

재외동포재단은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인회, 한글학교 등 전 세계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100주년 관련 기념행사 콘텐츠 프로모션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순국열사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동포사회 100주년 기념행사 우수 콘텐츠를 공모·발굴하여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12개국의 동포단체가 참여했다. 콘텐츠 현장 전달력과 내용의 충실성, 사진·동영상 등 콘텐츠 활용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 낭독, 독립운동가 소개 등의 짜임새 있는 기념행사 내용 및 진행과정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선보인 방글라데시 다카한인학교를 최우수 단체로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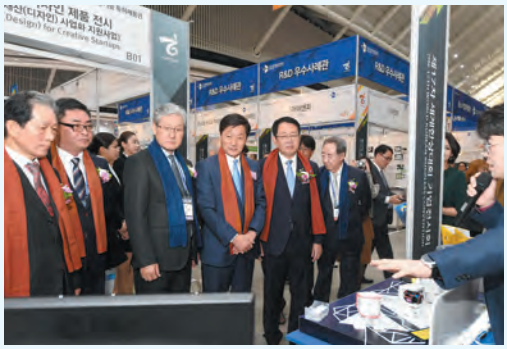
올해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재외동포재단이 전 세계 동포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기념행사 콘텐츠 프로모션 공모 결과 방글라데시 다카한인학교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다. 다카한인학교가 출품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영상 의 스틸 컷 사진.

우수단체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한인회, 멕시코 몬테레이한글학교, 미국 나일스한국학교, 댈러스한국학교 캐롤톤캠퍼스·플래노캠퍼스, 애틀랜타한인회, 월넛크릭한국학교, 중앙 한국학교, 브라질 선교 한글학교, 온두라스한국학교, 이탈리아 로마한글학교, 캐나다 에드몬튼한국어학교가 선정됐다.

외교부는 참여 콘텐츠를 활용하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행사, 재외동포가 함께했습니다." 동영상을 제작·홍보했다.

홍보 동영상은 재외동포재단 코리안넷 홈페이지 → 글로벌 코리안 → 글로벌 영상 → 공감 영상(http://www.korean.net/portal/madang/pg_part_video.do)에서 볼 수 있다. 창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사전 등록



'하나된 한상, 함께 여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지난 2017 세계한상대회에는 한상과 국내 기업인 등 5,000여 명이 참가했다(좌).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는 중소기업 특별관, 아이디어 상품관, 글로벌 식품관, 수출 우수기업관 등 259개 전시 부스가 운영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에서 주최하는 제18차 세계한상대회의 사전 등록이 5월 15일(수)부터 시작됐다.

이번 대회의 사전 등록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9월 2일(월)까지 세계한상대회 공식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가능하다. 사전 등록 시 한상대회 참가비가 약 30% 할인되며, 참가비 수입의 일부는 국내 소외계층 대상 장학사업 등에 기부된다.

올해 세계한상대회는 10월 22일(화)부터 24일(목)까지 전라남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한우성 이사장은 "여수는 동북아 국제물류기지의 중심인 국제무역항이며, 매년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국제 해양관광도시'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경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내외동포 기업인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대회는 국내 · 외 약 4천여 명의 기업인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 전시회를 비롯해 일대일비즈니스미팅, 한상비전콘서트, 세미나, 투자유치설명회,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현장면접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상대회 본부사무국(02-3415-0052)이나 카카오톡에서 '세계한상대회'로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실 추천 도서

'겹겹'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안세홍(서해문집)

사진작가 안세홍은 12년 동안 중국에 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찾아 나섰다. 전쟁으로 인해 20만 명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도 상당하다.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해도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 국적회복도 하지 못하고 중국에 남겨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과 나눈 순간들을 사진을 통해 기록했다.

뉴질랜드에선 모든 게 쉬워

유진아(씽크스마트)

피곤함이 일상이 된 요즘의 사람들은 '번아웃 증후군'을 통해 일상의 즐거움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이 책은 뉴질랜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 삶의 터전을 통해 우리가 잊었던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뉴질랜드 북섬에서 남섬까지 버스를 타고 걸었던 순간들을 읽으며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다.

2019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 공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는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개선 및 내용 증설을 위한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속의 한국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이해자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2019 '내가 한국바로알리기의 주인공' 에세이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1. 공모 주제

- **주제1: 외국에서 보는 한국 이미지**
  - 외국 교육자료(외국 교과서, 인터넷 사이트 등)에 나타난 한국 이미지
  - 한국 이미지 개선 방안 제안
- **주제2: 한국이해자료 활용**
  - 한국이해자료의 활용 후기 및 개발 제안

2. 응모 자격: 외국인, 재외국민

3. 제출 방법: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highspirit@aks.ac.kr)

- **제출 언어:** 한국어 또는 영어
- **제출 분량:** A4 3매 내외

※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교류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양식만 접수함).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으며, 저작권은 국제교류처에 귀속됨. 주제1과 주제2에 중복하여 응모할 수 있음.

4. 시상 내역

- **최우수상 2명:** 외교부 · 교육부 장관 상훈 및 90만원 상당의 상품
- **우수상 4명:**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상훈 및 30만원 상당의 상품
- **장려상 6명:** 국제교류처장 상훈 및 15만원 상당의 상품

※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선착순 100명 한정)

5. 접수 기간: 2019년 6월 1일(토) ~ 7월 31일(수)
마감 이후 도착한 작품은 접수하지 않음.

6. 결과 발표: 2019년 9월 20일(금) (예정)
한국문화교류센터 홈페이지 공지 및 입상자 개별통지

7. 문의: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제교류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실
이메일: highspirit@aks.ac.kr
전화번호: +82-31-739-9731, 9725
팩스: +82-31-739-9726
※ 공모와 관련한 문의는 반드시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한인 100년사: 꼬레앙 100년의 항해 1919~2019

(프랑스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프랑스 한인회, 재외동포재단)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이다. 그와 더불어 뜻깊은 100년의 역사가 있다. 머나먼 프랑스에 한국인들이 터를 잡은 지 100년이 되었다. 이 책은 프랑스에서 한인이 뿌리내리기까지 해방 전의 한인 역사부터 현재까지를 다루었고 프랑스 한인 사회 분야별 활동사가 기록돼 있다. 100년의 시간 동안 프랑스 내 한인의 모습들을 기억하며 세계 속 한인들이 나아갈 앞으로의 100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조명희, 그들의 문학과 생애

이명재(한길사)

항일 투사이자 민족문학의 선구자인 조명희의 삶을 조망해볼 수 있는 도서이다. 한반도와 현해탄을 넘나들며 문학 활동을 하고 러시아로 건너가 구소련지역 고려인들에게 한글교육을 해나갔던 조명희의 일생을 짚어본다.

잊혀진 고려인의 항일운동

박 환
수원대 사학과 교수,
고려학술문화재단 이사장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런데도 아직 고려인들의 위대한 항일운동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860년대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22년 말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특히는 연해주 지역에서 항일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지역 민족운동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연해주에서는 1905년부터 1908년까지 두만강 대안인 연추(현재 크라스키노)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의병장으로서는 이범윤, 최재형, 홍범도, 안중근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을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한민학교 등 민족학교를 설치하여 동포 자제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행하는 한편 신문 등을 간행하여 국내외 소식전달과 항일의식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1910년 일제에 의해 조선이 강점될 기미가 있자 연해주 한인들은 유인석을 중심으로 13도의군을 조직하여, 국내로 진공하여 일제를 몰아내고자 하였다.

넷째, 1911년 연해주 한인들은 한인자치기구로서 권업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의 자치활동과 독립운동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신채호, 이상설, 장도빈 등을 주필로 하는 권업신문도 간행하여 민족의식 고취에 노력하였다. 또한, 이동휘 등을 중심으로 대한광복군정부를 수립, 일제에 대항하여 한국의 독립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다섯째, 러시아지역의 한인들은 1919년 2월 국내외에서 최초로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만주와 국내 등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한편 상해임시정부와 도 통합을 이룩함으로써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민족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여섯째, 대한국민의회는 1919년 3월 17일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후 우수리스크를 시작으로 블라디보스토크, 크라스키노 등 여러 지역에서 3·1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의 신한촌에 있는 한인들은 한민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히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1905년부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결되는 시기까지 동포들의 인적 물적 지원으로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하여 민족운동발전에 공헌하였다. 그런데 1922년 러시아 내전이 종결된 이후 연해주 지역에서는 소련의 대한 인정책의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독립운동이 전개될 수 없었으며, 1937년에는 일본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18만 동포가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하는 비운을 겪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일제의 강점하에서도 끊임없이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나아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고려인의 위대한 적극적 항일투쟁에 대한 기념과 감사, 기억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아닐까 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려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창

외교부

국민외교센터

재외동포를 만나다

시즌1
카메라에 담긴 해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740만 재외동포,
한 번 만나보시겠어요?
외교부는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재외동포를 만나다"**
브라운백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합니다.

이번 시즌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카메라에 담긴 해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에 대한
2회의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관심 있는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차 **2019. 6. 19 (수)**
12~13시

사진에 담긴 해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김동우 사진작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독립 그날이 오면' 전시
- 「뭉우리돌을 찾아서」 저술

2차 **2019. 7. 3 (수)**
12~13시

영상에 담긴 해외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

허성호 EBS PD
- EBS1 다큐프라임 '역사의 빛 청년' 10부작 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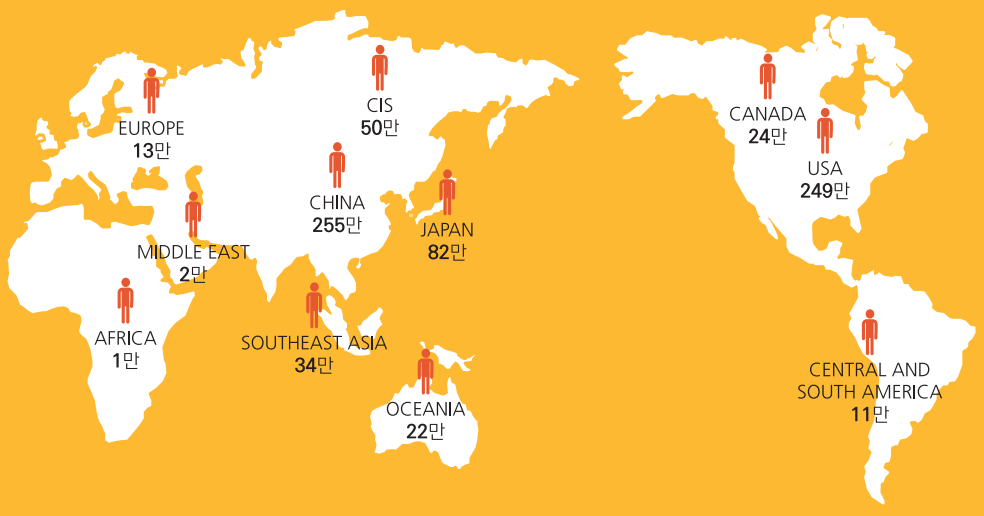
장소
외교부 1층 국민외교센터

대상
일반 국민, 공무원

참가접수
온라인 사전접수

모집인원
각 회별 50명

문의
02-2100-7576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그 힘은 740만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재단, 세계 740만 재외동포와 함께 밝은 내일을 만들어 갑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 스스로의 권익과 지위를 향상시키며, 역량을 결집하여 모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